

남자 대학생의 착용 패션스타일과 음악 · 여가 · 라이프스타일 · 가치관과의 관계

유혜경 · 백두진 · 고선영⁺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졸업 · 인천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Style and Music, Recreation, Lifestyle and Value of Male College Students

Haekyung Yu · Doo Jin Baek · Sunyoung Ko⁺

Professor, Dept. Fashion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Bachelor of Fashion Industry, Dept. Fashion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Research Follower, Th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Incheon⁺

(투고일: 2012. 10. 22, 심사(수정)일: 2012. 12. 26, 게재확정일: 2013. 1. 18)

ABSTRAC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ference of fashion styles of 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individual taste in other areas including music styles and recreation types. Life style and values were also examined for their relationship with the fashion style preferences.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during May and June of 2011, and a total of 256 respons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hree segments according to the fashion styles - 'modern-dandy', 'resistance style', 'no-individuality' groups -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erms of their preferred music styles and choice of recreational activities. Modern-dandy group preferred R&B, dance music and ballad, while resistance style group preferred hiphop, dance and reggae music. No-individuality group did not show any preference for a particular type of music. Both modern-dandy and resistance style groups liked sports, while resistance style group showed the lowest preference for hobby and culture.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festyles and values according to the fashion styles of the three groups.

Key words: fashion style(패션스타일), lifestyle(라이프스타일), music(음악), recreation(여가활동), value(가치관)

I.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음악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방식은 연주를 직접 듣는 실황 연주에 그쳐서, 소수 계층이 집에서 즐기거나 또는 제한된 때에 공공장소에서만 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음악활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기도 쉬워지고, MP3등의 휴대용 오디오 기기, 라디오,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서 손쉽게 그리고 어디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¹⁾, 최근에는 한류의 핵심 장르로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음악은 현대문화(contemporary culture)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Gans는 현대사회의 문화를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취향문화(taste culture)로 설명하였다.²⁾ 즉,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여러 문화영역에서 좋아하는 종류를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문화콘텐츠가 포함되는 모든 선택은 “취향”을 구성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 장르,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종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가장 유용한 수단중의 하나인 패션스타일과 취향을 구성하는 음악과의 관계성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음악 스타일과 패션문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은 대중적인 하위문화로 자리 매김한 힙합문화의 핵심요소인 힙합뮤직과 힙합패션스타일을 고찰하였다.³⁾⁴⁾ 힙합문화이외에도 시대별로 나타난 여러 음악 장르와 연관된 패션스타일은 상징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성에 대해서 문헌자료를 사용한 담론적인 분석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호하는 음악장르와 패션스타일의 연관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음악과 더불어 현대 소비자들에게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선택은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활동은 건강한 체력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개인에게 적합한 여가활동을 선택함으로써 높은 만족과 자아실현을 성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복추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⁶⁾ 다양한 여가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을 선택하는 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가활동도 음악과 같이 취향문화를 구성하며, 따라서 선호하는 음악과 여가활동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⁷⁾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패션스타일과 여가활동은 모두 취향문화의 구성요소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취향문화를 구성하는 패션스타일과 음악, 여가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더불어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는 양식을 나타내는 라이프스타일과 선호하는 패션스타일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취향문화의 기본 바탕인 가치관과 선호 패션스타일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음악을 많이 듣고, 비교적 자유롭게 패션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패션스타일과 선호하는 음악 장르, 그리고 여가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그동안 담론이나 현장의 경험으로만 존재하던 현대사회의 문화양식으로서의 패션스타일과 다른 문화영역과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선호하는 패션스타일 유형에 따른 선호 음악 장르, 여가활동의 유형을 조사하여 패션과 음악, 여가 활동이 적절히 어울린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장르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음악의 장르는 매우 다양하고, 그 분류 방법 또한 다양하다.

우선 고전 음악(classic music)과 대중음악(popular music)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사이에는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기도 하고, 크로스오버가 흔히 나타나고 있다. 대중음악은 힙합, 레게, 댄스 음악 등이 주를 이루며 하위문화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중음악의 주요 장르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발라드(ballad)는 느린 박자와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가사를 지닌 노래를 지칭하는 대중음악의 한 부류이다. 발라드의 근원은 중세말기 유럽의 짙막한 이야기 형식의 민요에서 비롯되었으며 1100년경 현재 형태의 발라드가 나타났다. 매스컴이 발달하기 이전 흥미있는 사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던 것이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스코틀랜드나 북부 잉글랜드는 발라드의 전통이 풍부하였다.

팝(pop) 음악은 서양의 대중음악으로 19세기 중 후반 미국에서 처음 탄생하였다. 1910년대 이후 레코드 산업, 소비자, 미디어와 결합되면서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추었다. 대중음악의 가장 보편적인 장르로서 쉽게 귀를 잡아끄는 리듬 요소, 멜로디와 후렴, 전통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음악 장르이다. 일반적으로 음악과 멜로디의 박자는 간단하며 약간의 화음이 덧붙여진다.

재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 남부 뉴올리안즈 일대에서 연주되고 형성된 춤에 대해 1914년 경 jass, jas, jaz, jazz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재즈는 곡의 형식이나 곡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연주 스타일 및 연주 그 자체에 대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클래식음악의 경우 작곡자가 항상 초점이 되지만, 재즈는 연주자가 항상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R&B(rhythm and blues)는 1940년대 후반 시작된 용어로 그전에 있었던 블루스보다 댄스비트가 강하고 리듬 멜로디가 대중적인 특징이 있다. 가사도 간단한 삶을 노래하던 블루스와 달리 쾌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락(rock)음악은 195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 로큰롤이라고 불렸는데, 처음에는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1960년 중반 음악형

식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폭넓은 관심을 끌었고, 그 후 음반을 넘어서 영화, 패션 정치 풍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레게(reggae)는 1968년 카리브해 자메이카를 중심으로 발생한 음악으로 R&B가 자메이카로 들어오면서 자메이카 정서에 맞게 바뀐 형태이다. 1970년 후반부터 영국의 하위문화의 하나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중반 레게록이 패션스타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유행하였다.

힙합은 1980년대 뉴욕의 가난한 흑인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리 문화를 말한다. 레게음악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음악인 힙합은 브레이크 댄스, 스크래치 DJ, 랩뮤직, 그래피티 아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힙합 패션스타일은 대부분 헬렁한 하의로 대표되는 특징을 지닌다.

댄스 음악은 춤을 수반하는 음악이지만, 실제로는 춤을 수반하지 않고 음악만이 연주되고 감상되는 일도 적지 않다. 댄스곡은 무엇보다도 리듬이 분명하고 형식은 단순하며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춤에 쓰이는 음악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댄스 음악은 리듬이 뚜렷한 음악으로 대중음악의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중음악 이외에 클래식음악은 원래 서양음악사에서 19세기 형성된 고전주의 음악을 일컫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서양 예술음악을 통칭하여 클래식이라고 한다. 클래식의 시대적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명확한 정설을 찾기는 어렵다.

2. 선호음악과 관련 변수

어떤 음악의 장르를 자주 듣고 또는 연주하는지를 조사한 Fox, Wince⁹⁾는 미국 대학생의 음악취향(musical taste)은 jazz-blues, popular hits, folk music, rock-protest, country-western의 5종류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음악취향에 따른 사회적변수를 조사한 결과 선호하는 음악과 사회계층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종교성향과 선호음악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유대교 vs. 무신론자, 천주교 vs. 개신교 사이에 큰 음악취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영국인 2532명을 대상으로 선호음악과 대중매체, 여가활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North, Hargreaves는 선호하는 음악에 따라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서적, 잡지, 여가활동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¹⁰⁾ 힙합/댄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중적인 언론매체와 실내 엔터테인먼트 및 지적노력이 많이 필요 없는 여가 활동을 좋아했으며, country-western음악이나 클래식음악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야외활동에 선호도가 높았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North, Hargreaves는 high-art(고급예술)과 low-art(대중 예술) 취향집단이 나뉘어 존재한다고 하였다.

박정양, 서경현¹¹⁾은 한국 대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음악 장르와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전음악 선호는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고전음악이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의 학생들이 고전음악을 자주 듣고 좋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에 비하여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심리적 효용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학생들은 노래 부르기 등 음악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힙합음악이나 다른 대중음악 장르에 나타난 패션스타일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고¹²⁾, 댄스 음악이나¹³⁾, 클럽의 하우스뮤직이¹⁴⁾ 대중의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문헌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그런가 하면, 힙합뮤직을 좋아하는 런던에 거주 10대를 표적 집단면접을 통해 질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힙합뮤직이 "black"문화 입에도 이들이 백인디자이너의 상징성을 가지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선호하는데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3. 여가활동

여가활동은 신체의 이완으로서 휴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긴장으로부터의 해방과 지루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등 현대인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¹⁶⁾ 제은숙¹⁷⁾은 여가활동에 따라 패션 소비자를 분류하고 집단

간에 의복관여와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여가활동은 사교활동, 스포츠 활동, 취미문화 활동, 휴식활동, 여행활동으로 구분되었으며 여가활동의 각 요인을 군집분석하여 여가무관심 집단, 여행활동집단, 취미스포츠 활동집단, 사교활동집단의 네 집단을 얻었고 각 집단 간에 의복관여, 의복선택기준, 패션정보원 사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패션스타일과 여가활동과의 관련성을 고찰한 제은숙¹⁸⁾의 연구와 음악장르와 여가활동과의 관계를 보여준 North, Hargreaves¹⁹⁾의 결과로부터 여가활동이 취향문화를 구성하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가활동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 자기표현이며 소비자마다 여가활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삶의 가치가 다르다.

여가활동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활동, 놀이오락 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으로 구분한 김재운²⁰⁾의 유형을 사용하였다. 스포츠 활동은 조깅, 체조, 헬스, 축구, 수영 등 각종 스포츠관련 활동을 의미하며, 취미교양활동은 사진촬영, 합창, 악기연주, 그림, 공예, 요리, 쇼핑, 독서, 서예 등을 포함한다. 놀이오락 활동은 바둑, 장기, 전자오락, 인터넷게임, 윗놀이, 만화 등을 포함하며, 관광행락활동은 유원지 소풍, 산책, 유적지방문,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다. 관람감상활동은 영화관람, 음악회, TV시청, 라디오청취, 스포츠 관람 등을 포함한다. 사교활동은 노래방, 술집가기, 클럽, 이성교제, 카페출입, 외식 등을 포함한다.

4. 패션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은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등 각기 다른 학문분야에서 조금씩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이 그 사람의 삶과 소비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¹⁾ 라이프스타일은 복합적인 가치체계에 의해 특징 지워지고,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의 전반적인 예측변수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의류학 분야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소비자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 세분집단의 의복구매행동의 특성을 고찰

하였다.²²⁾ 그런가 하면, 유행관여도²³⁾, 추구혜택²⁴⁾과 같은 심리적 변수, 점포선호 및 만족도²⁵⁾, 아울렛 애고행동²⁶⁾과 같은 소비자 구매행동도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y와 Saha²⁷⁾는 라이프스타일과 연령에 따라 전통복식과 현대 서양복식의 착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선호 패션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한경미, 나영주²⁸⁾는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전통적외관추구형'이 '여성적'인 감성을 가장 선호하며, '무관심만족형'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적' 감성은 '개인생활추구형'이 가장 선호하고, '정숙한' 감성은 '외적미추구형'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 감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라이프스타일이 생활에서 드러나는 양식이라면, 가치(value)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체계로서 개인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개인이 선택하거나 선호하는 패션스타일과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동력 요인인 가치관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의류학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치관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하고, 가치관에 따른 유행행동이나 구매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스페인 여성을 대상으로 Schwartz 가치관 척도를 사용하여 세분화한 결과, 4개의 세분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고, 이들 세분 집단은 쇼핑 스타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가치관과 패션리더십을 연구한 김선학, 정용길³⁰⁾은 사회적 가치를 쾌락지향성, 성취지향성, 내부지향성, 대인지향성으로 나누고, 쾌락지향성이 높은 여대생들이 패션리더십이 높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의복 소비가치는 패션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의복 소비가치는 진귀성, 상징성, 조화가능, 유행성, 실용성으로 나눌 수 있고, 진귀성, 상징성, 유행성은 패션수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조화가능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가치관과 소비자가 선호하거나 착용하는 패션스타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섬유패션제품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는 타인 지향적인 요인

과 자기 지향적인 요인이 공존하는데, 타인 지향적인 소비가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해외 유명 패션브랜드 시장의 확장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몰입하는 감성주의적 성향이 강조되어, 성능이나 품질보다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섬유패션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³²⁾ 그런가 하면, 표현성 가치, 기능적 가치, 진귀적 가치 등의 의복 소비가치에 따라서 직장여성들을 자기패션 추구 집단, 심리적 안정 추구 집단, 기능적 추구 집단, 사회적 추구 집단으로 나눌 수 있고, 세부 집단은 트렌드 테마의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였다.³³⁾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추구 집단은 'Nu-Basic' 트렌드 테마를 선호하였고, 다른 집단은 'romantic', 'feminine'의 테마를 선호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취향문화를 구성하는 패션스타일과 음악, 여가활동 및 라이프스타일간의 관계를 밝히고 취향문화의 기본바탕이 되는 가치관과 패션스타일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착용하는 패션스타일과 선호하는 음악장르간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착용하는 패션스타일과 여가활동간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착용하는 패션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간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4: 착용하는 패션스타일과 가치관간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2. 구성개념의 측정

설문지는 착용하는 패션스타일, 선호하는 음악장르, 여가활동 및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가치관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은 힙합, 모즈룩, 댄디룩, 레게, 빈

티지, 모던룩으로 구분하여 각 패션스타일로 의복을 착용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음악장르는 김미정, 이상폐³⁴⁾의 음악장르 구분을 참고하여 락, 힙합, 클래식, R&B, 재즈, 댄스, 레게, 발라드, 팝음악으로 구분하여 각 음악장르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여가활동 척도는 김재운³⁵⁾이 여가활동을 분류한 틀에 맞춰 각각의 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측정하였는데, 여가활동 유형은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활동, 놀이오락활동, 관광행락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을 포함한다. 라이프스타일 척도는 송상연 외³⁶⁾의 연구에서 사용된 라이프스타일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 위주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는데, 송상연 외³⁷⁾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패션지향성, 문화지향성, 목표지향성, 가족지향성, 디지털지향성을 포함한다. 가치관 척도는 김혜숙³⁸⁾의 연구에서 사용된 Schwartz³⁹⁾의 가치척도를 단축시킨 Maio와 Olson⁴⁰⁾의 척도를 사용하여 각각의 가치가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예비조사를 거쳐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총 256부의 응답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료는 SPSS18.0 프로그램 사용하여 군집분석, 신뢰도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로 분석되었다.

4. 응답자 특성

응답자들은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이들의 한 달 평균 용돈은 30만원에서 40만원사이가 가장 많았고(29.4%), 그 다음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22.7%), 20만원 미만(17.6%), 50만 원 이상(15.2%), 40만원에서 50만원(14.8%) 순이었다. 남자 대학생이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은 모던룩(3.19), 댄디룩(2.80), 빈티지(2.54), 모즈룩(2.22), 힙합룩(1.92), 레게룩(1.69)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들은 반항적 색채가 강한 힙합룩이나 레게룩보다는 깔끔하고 도회적 느낌의 모던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장르는 팝(3.60), 발라드(3.52), R&B(3.47), 댄스(3.34), 락(3.25), 힙합(3.23), 재즈(3.11), 클래식(2.79), 레게(2.70) 순이었다. 대학생들은 팝, 발라드, 댄스, 힙합 등의 대중음악에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고 판단되며 위의 범주에서 벗어난 고전음악 장르나 대중적이지 못한 레게음악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집단 분류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라 남자 대학생을 K-평균 군집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표 1). 첫 번째 집단은 모던스타일, 댄디스타일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어떤 패션스타일에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지 않아 '패션무개성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반항적 색깔이 강한 힙합, 모즈, 빈티지, 레게 스타일에서

<표 1> 패션스타일에 따른 남자 대학생 집단 분류

패션스타일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 N=88	패션 무개성 집단 N=100	저항패션 착용집단 N=67
힙합스타일	1.31 (B)	1.46 (B)	3.42 (A)
모즈스타일	1.48 (C)	2.22 (B)	3.33 (A)
댄디스타일	3.86 (A)	1.70 (C)	3.03 (B)
레게 스타일	1.31 (B)	1.31 (B)	2.78 (A)
빈티지 스타일	2.76 (B)	1.84 (C)	3.26 (A)
모던 스타일	3.88 (A)	2.47 (C)	3.34 (B)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저항패션 착용집단'으로 명명하였다.

2.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른 선호음악의 차이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장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은 R&B, 재즈, 발라드, 팝음악에서, 저항패션 착용집단은 힙합, 레게음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패션무개성 집단의 경우 음악선호에서도 두드러진 취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깔끔하고 도시적인 느낌의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은 발라드, 팝, R&B 음악 등 대중적으로 선호되는 음악장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저항패션 착용집단의 경우 평화, 자유, 정의, 아프

리카로의 회귀를 노래하는 흑인음악인 힙합, 레게에 대한 선호가 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North와 Hargreaves⁴¹⁾에 의하면 country-western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힙합이나 댄스음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각각 고급예술 취향 집단과 대중예술 취향집단으로 나뉘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모던댄디 스타일 착용집단이 대중음악을 그리고 저항패션 착용집단이 대중음악 중 특히 흑인음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급예술, 대중예술 취향 집단 대신 대중예술 중에서 그 성격에 따라 취향집단이 나뉘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라 여가활동에서 차이가

<표 2> 패션스타일에 따른 선호하는 음악장르의 차이

선호음악 장르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 N=88	패션 무개성 집단 N=100	저항패션 착용집단 N=67	F값
락음악	3.05	3.41	3.25	1.96
힙합음악	3.19 (B)	2.99 (B)	3.66 (A)	5.37**
클래식음악	2.80	2.81	2.73	0.94
R&B음악	3.81 (A)	3.31 (B)	3.27 (B)	5.59**
재즈음악	3.13	3.11	3.10	0.01
댄스음악	3.56 (A)	3.11 (B)	3.36 (AB)	4.03*
레게음악	2.51 (B)	2.67 (AB)	2.96 (A)	2.73
발라드음악	4.0 (A)	3.45 (B)	2.99 (c)	17.37***
팝음악	3.85 (A)	3.51 (B)	3.40 (B)	3.87*

* $p<.05$, ** $p<.01$, *** $p<.001$

<표 3> 패션스타일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여가활동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 N=88	패션 무개성 집단 N=100	저항패션 착용집단 N=67	F값
스포츠 활동	3.93 (A)	3.17 (B)	3.61 (A)	10.40***
취미교양활동	3.70 (A)	3.55 (AB)	3.33 (B)	2.25
놀이오락활동	3.49	3.44	3.42	0.68
관광행락활동	3.76	3.52	3.57	1.19
관람감상활동	3.84	3.71	3.73	0.41
사교활동	3.40	3.18	3.43	1.32

*** $p<.001$

나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표 3). 여가활동 중 스포츠 활동은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과 저항패션 착용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패션무개성집단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취미·교양활동은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에서 가장 높게, 저항패션착용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유의수준 .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놀이 오락활동, 관광행락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의 경우 모든 여가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적극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North와 Hargreaves⁴²⁾의 힙합/댄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적노력이 많이 필요 없는 여가활동을 좋아한다는 결과와 비교해볼 때 힙합, 댄스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저항패션 착용집단에서 던컨테스트 결과 취미교양활동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는 않았다.

4.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라이프 스타일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송상연 외⁴³⁾에서 라이프스타일 척도는 패션지향성, 문화지향성, 가족지향성, 목표지향성, 디지털 지향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지향성과 디지털지향성의 신뢰도

가 각각 0.426, 0.307로 낮게 나타나 이 두 유형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패션지향성, 가족지향성, 목표지향성의 크론바하의 알파 값은 <표 4>와 같다. 크론바하의 알파 값은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지만, 0.6-0.7이면 수용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패션지향성과 가족지향성은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나타냈지만 목표지향성의 신뢰도는 0.588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목표지향성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분석에 포함시켰다.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라이프스타일 중 패션지향성은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과 저항패션 착용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목표지향성은 모던 스타일 착용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저항패션착용집단과 패션무개성집단에서 낮게 나타났다. 가족지향성은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깔끔하고 도회적인 의복을 착용하는 남자 대학생이 패션지향성과 목표지향성이 모두 높은 현실적인 대학생 집단이며 반항의 색채가 짙은 저항패션 착용집단은 패션지향성은 높지만 목표지향성이 낮은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착용하는 패션에서 개성이 나타나지 않는 남자 대학생은 패션지향성도 목표지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하는 패션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선호 패션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을 보여준 Roy와 Saha⁴⁴⁾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표 4> 라이프스타일 척도의 신뢰도

라이프스타일	문항	크론바하의 알파
패션지향성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인다.	0.849
	패션 정보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패션에 들이는 돈이 아깝지 않다.	
가족지향성	휴가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즐겁다.	0.704
	다른 사람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	
	가족 모두가 모여서 식사하는 편이다.	
목표지향성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감이 강하다.	0.588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규칙이나 규범에 얽매는 것을 싫어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	

〈표 5〉 패션스타일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라이프스타일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 N=88	패션 무개성 집단 N=100	저항패션 착용집단 N=67	F값
패션지향성	3.31 (A)	2.82 (B)	3.36 (A)	16.32***
가족지향성	3.17	2.94	3.07	1.71
목표지향성	3.65 (A)	3.39 (B)	3.45 (B)	4.42*

*** $p < .05$, ** $p < .001$

5.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른 가치의 차이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가치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치척도의 하위척도의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라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의 경우 쾌락추구, 사회적 정의추구, 사회적 성취·권력추구,

보편적 가치추구, 도전·변화추구의 모든 가치척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항패션 착용집단의 경우 모든 가치척도의 하위척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패션 무개성 집단의 경우 쾌락추구, 사회적 정의추구, 보편적 가치추구, 도전·변화 추구에서는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사회적 성취·권력추구는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모두 모던스타일 착용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저항패션착용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김선학, 정

〈표 6〉 가치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가치	문항	크론바하의 알파
쾌락 추구	쾌락(욕망의 충족)	0.730
	삶을 즐기(먹거리나 성생활, 레저생활 등을 즐기)	
	재미있는 생활(자극적인 경험)	
	창의성(독특함, 상상력)	
	자유(행동과 사고의 자유)	
사회적 정의 추구	사회정의(불의를 바로잡음, 약자를 보살핌)	0.704
	평등(모두에게 기회가 동등함)	
	전통에 대한 존중(전통적인 관습을 보존하기)	
	마음이 넓은(나와는 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한)	
	환경보호(자연을 보존하기)	
사회적 성취, 권력 추구	사회적 권력(타인에 대한 통제, 지배)	0.729
	야망있는(열심히 일하는, 갈망하는)	
	사회적 안정(존경,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성공적인(목표를 달성하는)	
	권위(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독립적인(자기의존적, 자족적)	
보편적 가치 추구	정직한(거짓없는, 진실한)	0.730
	도움이 되는(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은혜에 보답하기(남에게 빚지지 않기)	
	자기통제(자제, 유혹에 저항)	
도전·변화 추구	용서하는(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0.632
	변화있는 생활(도전적인 생활, 새로운, 변화)	
	대담한(모험적인 일을 추구함)	

〈표 7〉 패션스타일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가치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 N=88	패션 무개성 집단 N=100	저항패션 착용집단 N=67	F값
쾌락 추구	4.13 (A)	4.12 (A)	3.78 (B)	8.02***
사회적 정의 추구	3.70 (A)	3.63 (A)	3.37 (B)	4.95**
사회적 성취, 권력 추구	3.92 (A)	3.57 (B)	3.58 (B)	8.56***
보편적 가치 추구	3.95 (A)	3.76 (A)	3.45 (B)	11.35***
도전·변화 추구	3.90 (A)	3.70 (AB)	3.57 (B)	3.51*

* $p<.05$, ** $p<.01$, *** $p<.001$

용길⁴⁵⁾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쾌락지향성과 패션리더쉽과의 관계를 밝혔는데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의 경우 쾌락지향성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항목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과 저항패션 착용집단 모두 패션지향성이 높지만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은 현대 사회에서 중시되는 모든 가치를 받아들이는 집단인데 반해 저항패션 착용집단은 현대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V. 결론

이 연구는 착용하는 패션스타일과 선호하는 음악장르, 여가활동,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대사회의 문화양식으로서의 패션스타일과 다른 문화영역 및 가치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라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은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깔끔하고 도시적인 스타일을 착용하는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 반항적인 색채가 강한 패션을 착용하는 '저항패션 착용집단', 어떤 패션스타일에도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패션 무개성 집단'이 각각 그것이다.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는 선호하는 음악장르, 여가활동 및 라이프스타일, 가치관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선호하는 음악장르에서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은 R&B, 재즈, 발라드, 팝음악을 저항패션 착용집단은 힙합, 레게음악을 선호하였으며 패션무개성 집단은 음악선호에서도 두드러진 취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가활동 중에서 스포츠 활동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냈는데, 스포츠 활동은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과 저항패션 착용집단에서는 높게 패션무개성집단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패션지향성은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과 저항패션 착용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고 패션 무개성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다. 목표지향성은 모던 스타일 착용집단에서는 높게, 저항패션착용집단과 패션무개성 집단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경우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은 쾌락추구, 사회적 정의추구, 사회적 성취·권력추구, 보편적 가치추구, 도전·변화추구를 포함한 모든 가치척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이와는 반대로 저항패션 착용집단의 경우 모든 가치척도의 하위척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패션 무개성 집단의 경우 모던댄디스타일 착용집단과 저항패션 착용집단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남자 대학생 집단이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장르, 여가활동, 라이프스타일에 차이가 있고 또한 가치관과 관련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여러 문화영역에서 좋아하는 종류의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선택은 상호관련이 있다는 Gans⁴⁶⁾의 주장과 일치한다. 취향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패션스타일에 따른 우리나라 남자대학생들의 취향문화는 현대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집단과 이에 저항하는 집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현대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은 패션스타일에서도 도시적이며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며 현대의 대중음악에 대한 폭넓은 선호를 나타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중시되는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문명에 저항하는 집단은 패션에서도 저항의 색채가 짙은 스타일을 착용하며 흑인음악을 선호하고 패션의식적이긴하나 목표지향성이 낮으며 모든 사회에서 중시되는 가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예술 취향집단과 대중예술 취향집단으로 구분한 North와 Hargreaves⁴⁷⁾와는 달리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 집단에게는 고급예술 취향집단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중예술 취향집단 중에서 현대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보수적 취향집단과 현대문명에 거부하는 진보적 취향집단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중도적 취향집단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착용하는 의복스타일을 포함한 취향문화가 존재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담론으로만 존재하던 패션스타일과 다른 문화영역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패션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쉽게 관찰되는 소비자는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이 소비자 시장을 구분하는 효과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패션스타일에 따라 구분된 세분시장간에는 서로 다른 취향문화가 존재하므로 특정 집단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에 적합한 문화적 요인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성인과 비교해 사회의 규범적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학생, 그 중에서도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학생 집단은 자신의 문화적 특성, 생활양식, 가치관이 투영된 패션스타일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 성인 소비자로 확대 적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라이프스타일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척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뢰도로 말미암아 원하는 분석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라이프스타일 척도를 사용하여 착용하는 패션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취향문화를 구성

하는 다른 문화적 요인들, 예를 들면 즐겨보는 서적, 선호하는 영화장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패션스타일에 따라 구분되는 취향문화의 범위를 확대시킨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박정양, 서경현 (2008), 대학생의 음악선호와 웰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2), pp. 497-511.
- 2) Gans, H. J. (1974),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p. 30.
- 3) 박한림 (2011), 힙합문화의 음악적 특성 변화가 대중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19(2), pp. 416-429.
- 4) 이인성 외 (2006), 힙합 뮤지션의 패션스타일 연구 - 흑인 뮤지션 스타와 국내 힙합뮤지션의 비교 연구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1), pp. 127-136.
- 5) 김신우, 전종찬, 김영인 (2005),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패션의 기호적 해석, *디자인학연구*, 18(1), pp. 233-244.
- 6) 허남양 (2010),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 만족과 자아실현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4), pp. 39-49.
- 7) North, A. C. & Hargreaves, D. J. (2007), Lifestyle correlates of musical preference: 2. Media, leisure time and music, *Psychology of Music*, 35(2), pp. 179-200.
- 8) 김신우, 전종찬, 김영인, *op. cit.*, pp. 237-241.
- 9) Fox, W. S. & Wince, M. H. (1975), Musical taste culture and taste publics, *Youth and Society*, 7(2), pp. 198-224.
- 10) North, A. C. & Hargreaves, D. J., *op. cit.*, pp. 181-199.
- 11) 박정양, 서경현, *op. cit.*, pp. 497-511.
- 12) 이인성 외, *op. cit.*, pp. 127-136.
김신우, 전종찬, 김영인, *op. cit.*, pp. 237-241.
- 13) 도규희 (1999), 댄스음악이 10대 패션문화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 랩음악과 힙합패션을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 12(3), pp. 93-103.
- 14) 박한림 (2010), 클럽문화가 대중의상에 미친 영향 - 하우스 음악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1), pp. 75-91.
- 15) Briggs, A. & Cobley, P. (1999), 'I like my shit sagged': fashion, 'black musics', and subcultures, *Journal of Youth Studies*, 2(3), pp. 337-352.
- 16) Kelly, J. R. (1982), *Leisure*, New Jersey: Prentice-Hall, pp. 10-11.
- 17) 제은숙 (2011), 여가활동 소비자의 패션관여와 의복선택기준, *복식*, 61(7), pp. 51-66.
- 18) *Ibid.*
- 19) North, A. C. & Hargreaves, D. J., *op. cit.*, pp. 181-199.
- 20) 김재운 (2005), 대학생 스포츠형 여가활동 참가 대

- 학생활 적응 및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9(3), pp. 131-142.
- 21) 정순희, 김현정 (2002), 라이프스타일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비문화연구*, 5(2), pp. 107-128.
- 22) 김정실, 이선재 (2008), 뉴실버 여성소비자의 지각연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연구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32(10), pp. 1535-1547.
- 임경복, 임숙자 (1993),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여대생의 시간소비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3), pp. 359-366.
- 전경란, 이미숙 (2008),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복식문화연구*, 16(3), pp. 444-460.
- 23) 전성미, 박정현, 최종명 (2006),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유행관여도 분석, *생활과학연구논총*, 10(1), pp. 181-191.
- 24) 이옥희 (2005), 일본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추구 혜택과의 관계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pp. 857-870.
- 25) 허경옥 (2006),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점포선호 및 만족도의 차이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5(3), pp. 385-395.
- 26) 김진영 (2006), 아울렛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 -20-30대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7) Roy, D. & Saha, G. (2007), Changes in women's dress preference: An in-depth study based on lifestyle and age, *South Asian Journal of Management*, 14(2), pp. 92-106.
- 28) 한경미, 나영주 (2003),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과 선호감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10), pp. 1026-1035.
- 29) Sarabia-sanchez, F., Vigaray, M. & Hota, M. (2012), Using values and shopping styles to identify fashion apparel seg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40(3), pp. 180-199.
- 30) 김선학, 정용길 (2000), 사회적 가치, 패션리더십, 그리고 쇼핑행동 특성, *대한경영학회지*, 15, pp. 159-181.
- 31) Kim, J., Jun, D. & Oh, K. (2010), The effects of clothing consumption values and subjective age on the fashion adoption of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6), pp. 1008-1020.
- 32) 이수철, 이은경 (2009), 트렌드와 섬유패션제품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가치의 변화,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4), pp. 395-404.
- 33) 나수임 (2004), 직장여성의 의복소비가치에 따른 패션트렌드 선호경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3), pp. 314-328.
- 34) 김미정, 이상례(2003), 팝음악과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 53(2), pp. 101-108.
- 35) 김재운, *op. cit.*, pp. 131-142.
- 36) 송상연, 이윤재, 이영선 (2010), 역구매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1(1), pp. 223-243.
- 37) *Ibid.*
- 38)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6(1), pp. 35-50.
- 39)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pp. 1-65.
- 40) Maio, G. R., & Olsen, J. M. (1995), Relations between value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he moderating role of attitude fun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pp. 266-285.
- 41) North, A. C. & Hargreaves, D. J., *op. cit.*, pp. 181-199.
- 42) *Ibid.*
- 43) 송상연, 이윤재, 이영선, *op. cit.*, pp. 223-243.
- 44) Roy, D. & Saha, G., *op. cit.*, pp. 92-106.
- 45) 김선학, 정용길, *op. cit.*, pp. 159-181.
- 46) Gans, H. J., *op. cit.*, p. 30.
- 47) North, A. C. & Hargreaves, D. J., *op. cit.*, pp. 181-199.